



◇직접 종이에 써가며 법문하시는 모습.



◇언제나 자상하게 신도들을 대하는 친전도인이다.

거울같은 삶 사세요

기자가 본 호명 스님

“네, 고맙습니다.” 호명스님이 전화 통화를 끝낼 때면 언제나 빼 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다. 앞에 어떤 내용의 말이 오갔든 그런 상관이 없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꼬리처럼 따라 붙는다. ‘감사, 자비, 봉사’로 살아야 돼, 그리고 성실, 근면, 검소를 생활지침으로 삼아야 돼, 늘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생활로 이어지고 있음이다. 스님이 지도하는 공부모임인 경심회(靜心會) 회원이면서 스님을 시봉하는 백련화 보살은 “요즘은 뜰과 잡초를 손수 뽑아내고 텃밭을 가꾸며 새벽부터 밭에 나가 한 시도 쉬지 않고 정진하신다”고 귀띔했다.

1939년 출가해 해인사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봉암사를 비롯한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시던 스님은 87년이후 통도사 시립전에 주석하고 계신다. 그림 속에 나오는 신선처럼, 눈썹이 하얗고 웃을 때면 천진분 같은 호명스님은 세수 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갈 듯 가볍게 움직이고, 같은 모습은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뭇하다. 지금도 법문을 청하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

리지 않고 달려가고, 부산 극락선원과 경심회에 서 이론과 실천이 겸비된 법문으로 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탁났한 스님이 방한했을 때는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탁났한 스님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갔을 정도로 내로라하는 스님들의 법회에 스님은 간혹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불교적 가르침과 연결시키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려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스님의 정진력을 잘 보여 준다.

“알듯 모를 듯 흐리멍덩한 사람들의 명태눈을 뜨게 할 핵심을 일러주기 위해” 반야심경 해설서를 집필하고 있는 스님은 경심회 회원들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준비에도 한창이다.

비가 오는 중에도 마당까지 따라 나와 배운해 주신 호명스님. 기자의 손을 꼭 잡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볼보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봉사하는 길을 찾아 보이면 틀림없이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이라는 당부와 덕담을 잊지 않았다.

세수 90불구 법문 청하면 어디든 달려가
기자에게 “사회 도움되는 글 쓰라” 당부도

진력을 잘 보여 준다.
“알듯 모를 듯 흐리멍덩한 사람들의 명태눈을

아’ 하는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남과 나를 분별하지 않는 진정한 자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소우주로서의 내 존재를 깨닫고 나면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버리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내 몸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른손을 꼬집으면 오른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아’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찌 오른손이 밍다고 왼손이 오른손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같은 몸의 팔 다리가 서로 때리고 고통을 주는 어리석은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야 합니다.

현대의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종교, 과학, 철학이 삼위일체가 된 일원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달된 과학으로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종교적 가치를 가미해 사랑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소우주의 소질을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비와 봉사, 검사와 신조로 삼고 성실, 근면, 검소를 생활지침으로 삼고 노력해야 합니다. 심성을 닦아 나가면 귀결하는 것이 그곳입니다. 늘 자비로 사람을 대하고 차원을 높여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야죠.

오르려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바다 밑까지 내려가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흉내만 내지 말고 철저히 하라는 말입니다. 산 중턱쯤에 올라 산정상에 가본 듯 말하지 말고, 묵묵하게 생활가운데 실천하고 치열하게 파고 들어와야 합니다. 공부는 안에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얼굴이 있듯 순수의식은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표면에 속지 말고 바다 밑까지 내려가 고요한 본성품, 순수 의식으로 살면, 지금 여기가 부처님 세상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바다 밑 같이 고요한 삶 바로 부처님 세상

도 불행한 향해 달려가는 형국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인과입니다. 이기심은 독가스라 같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남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선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깨버려야 참다운 실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깨는 핵심은 바로 ‘마하’에 있습니다. ‘마하’, 즉 우주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소질을 그대로 가진 소우주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내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내안에 들어있고, 상대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부러울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어요. 남 욕할 것도 없어요. ‘이놈아’ 하고 욕하는 순간 그 속에는 나를 향해 ‘이놈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소질을 그대로 가진 소우주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내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내안에 들어있고, 상대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부러울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어요. 남 욕할 것도 없어요. ‘이놈아’ 하고 욕하는 순간 그 속에는 나를 향해 ‘이놈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묘경스님

행자시절을 막 끝낸 초심자가 큰스님처럼 주지실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하도 노숙하게 앉아 있어서 같은 도반들이 인사를 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렇다고 몸집이 큰 것도 아니고 연로해 보이지도 않는 야무진 체형의 조그마한 스님이 말이다. 이런 모든 모습을 다 묶어 표현한다면 오뎅이 같은 스님이다. 강원에서 처음 만나서 어느새 심년을 훨씬 넘는 세월을 함께 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학문을 향한 한길을 가는 스님인데 법명이 묘경이다.

이런 묘경스님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다. 통도사 강원에 있을 때 운전면허시험을 치러 갔는데, 다소 쉽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같이 간 스님은 한번에 붙었는데 묘경스님은 몇 번을 가야 했다. 그때 도반들이 다 한마디씩 했다. “그래서 어찌 살래? 묘경스님 대학 나온 거 맞나?”

역시 운전면허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 탄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싶다. 나름대로 자존심도 상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런 성격에 학문이 되나 싶을 때도 있다.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은 표 나지 않게 일하고 공부 잘하는 하는 사람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공부를 하는가 보다.

한번은 이런 낙천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일이 있었다. 가끔 부산을 지날 때는 내가 사는 처소에 들리곤 했다. 내 방 냉장고에 오래된 우유가 하나 있었는데, 평소엔 우유를 잘 먹지 않는 터라 별 관심 없이 내버려둔 것이었다. 그걸 기분 좋게 마시고는 빈 통을 냉장고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이가 없어 낄낄 웃으며 보니 한달하고도 반이나 지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후의 묘경스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미미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을 왜 그렇게 놔두었느냐는 정도의 투정으로 끝난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둔 나도 무심하지만 그것을 먹고도 태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아마 소심한 성격이라면 당장 화장실에 가서 토하던 설사를 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일 텐데, 그냥 그런 거 부다 하고 수용하는 눈치였다. 물론 그 속사정 이야길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많은 추억과 사연을 뒤로한 채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이 강원을 졸업하고 각자 선방으로 가거



그림·문병성

하고 빨리 합격을 해야겠다는 욕심도 생긴데다가, 도반들의 넉넉한 핀잔과 조롱에 은근히 약이 오른 묘경스님은 마침내 면허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된다. 그저 이러한 하나의 추억일 뿐이다.

묘경스님의 강당 생활은 열심이었다. 자부심도 대단했고, 고집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법을 일찍이 배웠다. 당나라의 마조스님께 한 스님이 묻되 “도를 어떻게 닦아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니 스님 말씀이 “도를 닦는다는 게 별 게 아니지.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우면 잠자는 게지.” 라고 하셨다.

세상에 이처럼 쉬운 일이 또 있을까라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 잘 때 단순히 잠만 잘 수 있어서 매 순간을 반보 없이 충실하게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으리라.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실천이라도 하듯 묘경스님의 일상에는 특별히 꾸미거나 인위적인 것이 없다. 어찌 보면 지극히 낙천적이다. 그래서 아쉬울 것도 답답할 것도 없는 여유로 사는

여유와 자부심 강한 오뎅이

행자 때나 지금이나 학문 한 길

나, 아니면 소임을 살려 인연 따라 떠날 때 묘경스님은 할 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때부터 지극한 노력으로 공부한 결과, 대학원을 마치고는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갔다고 밝혔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생활공간이 한번 움직일 때 내내 세상이 뒤바뀌는 혼란이 찾아오는 법인데 그런 면에서는 참 자유롭게 사는 편이다. 그것은 단순하게 살아온 생활 습관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이런 저런 여건과 환경에 굳이 무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대로 순응하며 사는 모습이 보기 좋은 스님이다. 그리고 보면 평생에 복을 닦아도 많이 닦은 모양이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싶다고 마냥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허락되면 경제력이 안되고, 경제력이 있으면 시간이 안 되는 것이 세상사이고, 만약 모두가 다 충족되면 지혜가 부족해서도 힘든 법인데 그레도 오뎅이처럼 언제나 공부한다고 자신을 추켜세우는 모습에 도반으로서 흐뭇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박사과정까지 끝냈다. 이제 그의 공부에 있어서 제도상의 과정이 끝나면 어느 강단에 서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불행호부의 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해 본다. ■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국내최저점 990만 원
의료기기 허가/허가
기립 20%세일

『佛心同體』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돌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형스700

₩4,800,000
→ ₩3,840,000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형스600

₩2,700,000
→ ₩2,160,000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스님과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헬스라이프 침대는 음전위효과, 온열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설계되어 침구로는 국내최초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동풍연계로서는 최초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아 통증완화와 혈액개선 등의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삼분의 일 가량을 잠자리 시간으로 할어한다고 할 때, 편안한 잠자리는 건강한 하루를 위해 헬스라이프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스님께서는 보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심 골 : ₩ 1,900,000 → ₩ 1,560,000
- 더 볼 : ₩ 3,600,000 → ₩ 2,880,000

★ 책임보험 2억원 가입 (삼성화재)

구입문의 02-581-6011

※ 각종 은행신용카드 결제로 24개월까지 할부가능합니다.
※ 주문시 현장설치 및 1년간 무료 A/S 보장.

지사 및 대리점모집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7-6
TEL: (02) 581-6011~3
공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272